

# 2022학년도 중앙대학교 모의 논술

## - 경영경제계열 문제지 -

대학	학과(학부)	수험 번호	성명

### □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1.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모두 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여백을 이용하십시오.
3. 답안지의 수험 번호 표기란에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표기하고, 답안은 흑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작성하십시오.
4. 답안은 원고지 작성법에 따라 작성하십시오(숫자, 수식, 표 등은 예외).
5. 주어진 답안 작성 분량을 지키고(띄어쓰기 포함) 답안지는 한 장만 사용하십시오.
6. 답안을 작성할 때 답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어떤 것도 쓰지 마십시오.
7.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십시오.
8. 시험 종료 30분 전부터 답안지 교체는 불가합니다.
9.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어 바닥에 내려놓으십시오. 시험 중 휴대폰(전자기기 포함)이 울리면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즉시 퇴실 조치합니다.  
※ 지정 구역을 벗어난 답안은 채점이 불가능함.  
※ 수정액, 수정테이프 절대 사용 불가함.

※ 위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응시자 성명 \_\_\_\_\_(서명)



CHUNG-ANG UNIVERSITY

## [경영경제계열]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빗 독촉에 시달리던 남자 김 씨는 한강에서 자살하려다 우연히 살아남아 무인도인 밤섬에서 깨어난다. 밤섬에서 탈출하려던 남자는 버려진 오리배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물고기와 새를 잡아먹으며 살아간다. 어느 날 쓰레기 속에서 짜장 라면 양념 가루를 발견한 남자 김 씨는 짜장면이 먹고 싶어져 농사를 짓기 시작한다. 한편 여자 김 씨는 다른 사람과 교류하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지낸다. 그녀의 유일한 취미는 방 안에서 사진 찍기인데, 우연히 밤섬 쪽을 찍다가 남자 김 씨를 발견한다. 오랜 관찰로 남자의 사정을 알게 된 여자 김 씨는 남자 김 씨에게 짜장면을 배달시켜 보낸다.

### s#83 방(오후)

여자의 망원 렌즈 시점. 짜장면을 들고 배달원 앞까지 걸어오는 남자. 배달원에게 '뭐라 뭐라'하는 남자. 그러고는 돌아서 가 버린다. 황당한 배달원. 어쩔 수 없이 짜장면을 도로 철가방에 담는다. 카메라에서 눈을 떼는 여자.

### s#85 현관(오후)

딩동! Ding! Ding! 짜증 날 대로 난 배달원. 대답이 없자 현관 앞에 급기야 무작정 짜장면을 내려놓는다.

**배달원** 아, 몰라, 몰라, 몰라! 직접 전해주든지, 먹든지, 버리든지.....

**여자** 그 남자..... 다른 말 없었어요? 뭐라고 하는 거 같던데..... 그죠? 뭐라고 그랬어요?

**배달원** 전해 달래요.

**여자** (동그랗게 떠지는 두 눈)

**배달원** (갑자기 정색하며) 자기한테 짜장면은..... 희망이래요.

### s#97 짜장면을 만들다(오후)

오리배 앞. 말린 옥수수의 알을 하나하나 떼어내는 남자. 여자가 보내온 와인병으로 힘차게 옥수수 알을 뺀 남자. 이제는 가루가 된 옥수수에 적당량의 물을 붓는다. 다시 한번 와인병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 반죽한다. 반죽한 덩어리는 강통 뚜껑으로 얇게 잘라 낸다. 모닥불 위에 끓고 있는 물. 잘라 낸 면을 넣고 나뭇가지로 천천히 젓는 남자.

### s#98 짜장면 완성(오후)

모래사장. 김이 모락모락 나는 면을 그릇에 담는 남자. 양념 가루를 들어 조심스럽게 찧는다. 툭 툭 툭 양념 가루의 마지막까지 남김없이 털어 낸다. 나무젓가락을 꺼내 쓱 쓱 면과 양념 가루를 비비는 남자. 마침내 어느 정도 비벼진 면을 잠시 바라보는 남자. 남자의 표정은 설명할 수 없는 감격으로 가득하다. 드디어 완성된 남자만의 짜장면을 한 젓가락 들어 입으로 가져간다. 우걱우걱 씹는 남자의 감정이 어느 순간 북받친다. 감정을 누르고 다시 한 젓가락을 입 속에 넣는다. 우걱우걱 씹을수록 점점 더 뜨거워지는 눈시울. 어느새 뚝뚝 떨어지는 굵은 눈물. 남자, 입가가 시커멓게 되도록 짜장면을 육여넣어 보지만, 북받치는 감정을 참을 길 없다. 애써 웃어 보려 하는데 자꾸만 눈물이 흐른다. 이제껏 흘려 본 적 없는 눈물. 말하자면 그것은 살아 있다는 증거 같은 눈물이다.

### s#99 방(오후)

여자는 무언가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한다.

**여자** (미소를 지으며) 콩그래츰레이션스.....

### s#102 오리배 안(오후)

그동안 받은 와인병들이 줄지어 서 있는 오리배 안. 여자의 편지, 'CONGRATULATIONS'를 보고 있는 남자.

바라보는 남자의 평온한 시선. 비록 짧은 단어지만 많은 감정을 읽을 수 있다. 한동안 보던 남자, 무슨 생각에선지 오리배 안 구석, 잡동사니가 쌓여 있는 곳에서 뭔가를 찾는다. 남자가 집어 드는 건 다름 아닌 휴대 전화. 목소리를 가다듬어 보는 남자. 폴더를 열고 잠시 후.

**남자** 헬로?..... 하우 아 유?..... 파인 생큐, 앤 유? 파인 생큐! 음..... 웨얼 아유 프롬?..... 코리안? 리얼리? 오 마이 갓! 미투! 미투! 아임 코리안! 프롬 도봉구..... 예..... 아..... 앤드, 아..... 할 얘기가 없다. 아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애초 하나뿐이었다.

**남자** 아이..... 아이..... 흠 투 씨 유..... 후 아 유?

(나) 로사, 피닌 그리고 코르데라 이렇게 셋은 늘 단짝이었다! 소몬테 목장은 구름 아래로 녹색 들판이 용단처럼 펼쳐진 삼각 지대였다. [중략] 사실 동료들보다 한결 고지식한데다 나이도 한참 위인 코르데라는 상대적으로 문명 세계와의 소통을 일체 마다한 채 멀찍이서 전봇대를 바라보았는데, 실제로 그녀는 몸을 비빌 수조차 없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죽어 버린 사물을 대하듯 했다. 그녀는 나이 지긋한 암소였다. 풀밭이라면 흰히 꿰고 있는 그녀는 몇 시간이고 자리에 앉아 시간을 활용할 줄 알았다. 풀을 뜯기보다는 명상을 즐겼고, 또 영혼을 살찌우는 사람처럼(짐승에게도 영혼이 있다.) 자기 땅의 고즈넉한 회색빛 하늘 아래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기쁨을 만끽했다.

그녀는 자기를 사육하는 일을 맡은 어린 목동들의 놀이에 할머니처럼 함께 어울렸다. 그럴 수만 있다면, 코르데라는 로사와 피닌이 목장에서 맡은 임무가 울타리를 벗어나 철길로 뛰어든거나 근처의 경작지로 들어가지 못하게 그녀를 살피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미소를 머금었을 것이다. 무엇 하러 울타리를 뛰어 넘겠는가!

그녀는 이따금씩 풀을 뜯어 먹었는데, 많이 먹지도 않았고 갈수록 양도 줄었다. 하지만 어리석은 호기심 때문에 고개를 들어 한눈을 파는 일은 없었다. 그녀는 주저 없이 가장 좋은 풀을 골라 조심조심 몇 입 뜯어 먹고서 흐뭇하게 엉덩이를 깔고 앉아 살아온 날들을 되새김질하거나 고통 없는 기쁨을 만끽했다. [중략]

최후의 순간에 둘은 친구인 코르데라에게 몸을 던졌다. 그녀를 꺼안고 입을 맞추었다.

“안녕, 코르데라!”

눈물로 뒤범벅이 된 로사가 소리쳤다.

“잘 가, 사랑하는 코르데라!”

“안녕, 코르데라!”

감정이 복받쳐 피닌이 따라 외쳤다.

마지막으로 코르데라의 방울 소리가 자기 방식대로 응답했다. 체념한 코르데라의 슬픈 탄식은 마을에 내려앉은 칠월 밤의 다른 소리들에 섞여 사라져 갔다.....

이튿날 피닌과 로사는 평소처럼 아주 이른 시간에 소몬테 목장으로 갔다. 그 쓸쓸함이 그토록 슬프게 느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날, 코르데라 없는 소몬테는 마치 사막과도 같았다.

갑자기 기적이 울리더니 증기가 피어올랐고, 이윽고 기차가 모습을 드러냈다. 화물차는 굳게 닫혀 있었지만, 쌍둥이 남매는 높고 좁은 차창과 환기통에서 겁에 질린 채 채광창을 통해 멍하니 밖을 내다보는 암소들의 머리를 어렴풋이 보았다.

“안녕, 코르데라!”

로사는 친구인 할머니 소 코르데라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며 소리쳤다.

“안녕, 코르데라!”

피닌도 같은 생각으로 카스티야의 길을 질주하는 기차를 향해 주먹을 쥐어 보이며 악을 썼다. 어리지만 세상의 야비함에 대해 여동생보다 더 잘 알고 있는 피닌이 울면서 다시 소리쳤다.

“코르데라를 도살장으로 데려가는 거야..... 소고기가 되어 지체 높은 양반네들과 사제들..... 졸부들 입에 들어가는 거라고.”

로사와 피닌은 원망 어린 눈으로 그들에게서 친구를 앗아 간 적대적인 세계의 상징인 철길과 전봇대를 노려보았다. 돈 많은 대식가들을 위한 음식으로 만들어 그들의 식탐을 채우기 위해 오랜 세월 고독과 말 없는 사랑을 함께 나눈 자신들의 친구를 삼켜 버린.....

**(다)** 무술년은 내가 예순여섯 살이 되던 해이다. 갑자기 앞니 하나가 빠져 버렸다. 그러자 입술도 일그러지고, 말도 새고, 얼굴까지도 한쪽으로 뺄어진 것 같았다. 거울에 얼굴을 비춰 보니 놀랍게도 딴사람을 보는 것 같아 눈물이 내려 하였다.

사람이 체력을 유지하고 기르는 데는 음식만한 것이 없는데, 음식을 먹으려면 이가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가 빠져 버리고 나니 빠진 이 사이로 물이 새고 밥은 딱딱하여 잘 씹히지 않으며, 간간이 고기라도 씹으려면 마치 독약을 마시는 사람처럼 얼굴이 절로 찌푸려진다.

나는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입에 올리지 못한 책이 수두룩하다. 이제부터라도 아침저녁으로 시골 풍경을 바라보면서 책이나 흥얼거리는 것으로 말년을 보내려 했다. 그리하여 캄캄한 밤에 촛불로 길을 비추듯, 인간의 근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렇게 마음먹고 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가 빠진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소리가 마치 깨진 종소리 같아서, 빠르고 느낌이 마디지지 못하고, 맑고 탁한 소리가 조화를 잃고, 칠음(음계를 이루는 일곱 가지 소리)의 높낮이도 분간할 수 없으며 팔풍(여덟 가지 악기의 소리)도 이해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낭랑한 목소리를 내 보려고 안간힘을 써 보았으나 끝내 소리가 말려 들어가고 말았다. 나는 내 모양이 슬퍼서 책 읽는 일을 그만두어 버렸다. 그러고 나니 마음은 더욱 게을러져 갔다. 결국 인간의 근본을 찾으려 했던, 최초의 마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이가 빠지고 난 뒤에 나의 마음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이다. [중략]

지금 얼굴이 일그러져 추한 모습으로 갑자기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모두 놀라고 또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니, 내가 아무리 늙었음을 잠깐만이라도 잊으려 한다 해도 가능한 일이겠는가?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나는 노인으로서의 분수를 지켜야겠다.

옛날 선인들의 예법에, 사람이 예순 살이 되면 마을에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군대에 나가지 않으며, 또 학문을 하려고 덤비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나는 일찍이 『예기』를 읽었으나 이와 같은 예법에는 동의하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곤 했는데, 지금에 와서야 그동안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크게 깨달았다. 앞으로는 조용한 가운데 휴식을 찾아야 할까 보다. 결국 빠진 이가 나에게 경고해 준 바가 참으로 적지 않다 하겠다. 얼굴이 일그러졌으니 조용히 들어앉아 있어야 하고, 말소리가 새니 침묵을 지키는 것이 좋고, 고기를 씹기 어려우니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하고, 글 읽는 소리가 낭랑하지 못하니 그냥 마음속으로나 읽어야 할 것 같다. 조용히 들어앉아 있으면 정신이 안정되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면 허물이 적을 것이며,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면 수복(오래 사는 복)을 온전히 누릴 것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글을 읽으면 조용한 가운데 인생의 도를 터득할 수 있을 터이니, 그 손익을 따져 본다면 그 이로움이 도리어 많지 않겠는가?

**(라)** 송도에 사는 황 진사의 딸 황진이는 시와 음악에 재능이 뛰어나고 용모가 아름답기로 유명했다. 황진이는 서울의 윤 승지택과 혼약을 맺지만, 집안의 하인인 놈이가 황진이의 출생 배경을 누설하여 파혼을 당한다. 이 무렵 한 총각이 황진이를 연모하다가 상사병으로 죽어서 그의 장례식이 열린다.

진이는 담장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서로 부르고 찾는 소리, 자리를 다투는 걸직한 욕설들, 느닷없이 터져 오르는 너털웃음들..... 저 사람들은 지금 그의 고통을, 그의 슬픔을, 그의 창피를, 그의 굴욕을 구경하고 싶어 저리도 뒤설레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 그렇다면 응당 그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여 주어야지.)

진이는 자개함 통을 열고 그 안에 깊숙이 간수해 두었던 자기의 혼수를 꺼냈다.

사시쯤 되었을 때 상행이 뒤골 어구에 들어섰다. 상여는 앞으로 나갈 듯 뒤로 물러서고 물러설 듯 다시 앞으로 나가며 요령 소리와 상여 노래에 맞추어 그네처럼 한자리에서 흔들렸다.

진이는 담장 안쪽에서 문고리를 쥐고 마음을 굳게 다잡았다. 진이는 문을 열었다. 구경꾼들은 깜짝 놀랐다. 상두꾼들이 상여를 내려놓았다. 진이는 죽은 총각의 관곽 앞에 마주 섰다. 그리고는 손에 들고 나온 꽃무늬의 붉은 슬란치마를 활짝 펴서 관곽을 덮었다. 진이는 마치 눈에 보이는 그 누구와 속삭이듯 입을 열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류두날 밤 달빛 속에서 자기를 낫 잃고 쳐다보던 그 총각의 얼굴이 우렷하게 떠오르는 것이었다.

“여보세요, 나는 당신을 잘 모릅니다. 한번 얼핏 뵈온 일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당신이 죽음으로 보여 준 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압니다. 유명한 길이 달라 지금은 당신의 그 진실한 사랑에 보답할 길이 전혀 없군요. 혹시 이후 저승에서 다시 만나 뵈게 될는지..... 이승에서 보답할 수 없었던 사랑을 저승에서는 꼭 갚아 드리렵니다. 그 약속에 대한 표적으로 제가 마련해 가지고 있던 혼례 옷을 당신의 령전에 바치오니 알음이 있으면 받아 주세요. 인명이 하늘에 매였다고는 하나 인정에 어찌 애달지 않겠나요. 생사가 영 리별이라고 하지만 후생의 기약이 있으니 바라옵건대 어서 떠나세요.....”

진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목소리가 갈려서 마지막 말을 채 맺지 못했다.

진이는 별당에 돌아와 방 안에 앉았다. 그는 방금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죽은 혼백과 저승의 사랑을 약속했다. 진이는 사람들의 구구한 시비와 말밥에 오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다. 한 가지 자신에게 명백히 할 것은 이 행동이 일시적인 충동이나 번덕이 아니라는 것이며 보다 중요하게는 자신이 지니고 있던 사랑의 감정을 송두리채 죽은 혼백한테 바쳐 버렸으니 이제부터 자기는 이승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사랑이라는 감정은 전혀 있을 수 없는 목석과 같은 녀인이라는 것이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진이가 간절히 바라는 바요, 진심으로 원하는 바였다.

**(마)** 사춘기 반항의 푸른 물결을 반추하게 해 주는 소설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언컨대 열에 아홉은 『호밀밭의 파수꾼』을 꼽지 않을까? 뉴욕 맨해튼에 사는 부유한 가정 출신의 16세 소년, 홀든 콜필드가 사립 학교에서 쫓겨나면서 이를 동안 경험하고 생각한 것들을 담고 있는, 시간상 짧은 이야기이지만 그 응집력은 어지간한 장편 소설을 넘어선다. 홀든은 잘사는 부모도, 그 밑에서 죽은 듯이 암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도 싫다. 우리가 십 대 초반에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었던, 마치 ‘부정’이 역병처럼 돌던 시기를 관통했듯이 말이다. 그러던 와중에 세 번째 사립 학교에서 쫓겨난 홀든은 더는 어른들의 공허함 가득한 허위와 가식의 세계에 동참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어린 나이에 학교라는 자신의 사회, 그 경계 밖으로 쫓겨난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뛰쳐나온 홀든 앞에 펼쳐진 뉴욕의 거리 또한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 [중략] 마음과는 달리 떠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며 홀든은 담담히 꿈을 이야기한다.

“그건 그렇다 치고, 나는 늘 넓은 호밀밭에서 꼬마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어. 어린애들만 수천 명이 있을 뿐 어른이라고는 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난 아득한 절벽 옆에서 있어. 내가 할 일은 아이들이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재빨리 붙잡아 주는 거야. 애들이란 앞뒤 생각 없이 마구 달리는 법이니까 말이야. 그럴 때 어딘가에서 내가 나타나서는 꼬마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거지. 말하자면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다고나 할까. 바보 같은 얘기라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내가 정말 되고 싶은 건 그거야.”

홀든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 구절을 읽으며 나는 괜스레 눈물이 났다. 그가 얼마나 아이이고 싶은지, 또 동시에 얼마나 어른이고 싶은지를 느낄 수 있었다. 또 절벽에서 자신을 붙잡아 줄 어른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곧 자신이 절벽 위에 서서 온갖 바람을 맞고 언젠가는 낭떠러지로 떨어질지 모른다고, 누군가 붙잡아 달라는 소리 없는 외침

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러한 외침이 어른들의 세계에서 메아리도 없이 공허한 울림만으로 돌아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홀든은 공허함을 느꼈을 것이다.

나는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으므로 절실하게 내가 나를 이해하려 들기 때문이다. 그 과정을 통해 진정한 자기애가 생긴다고 믿는다. 반항이나 방향이 필요한 까닭도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것을 돌이킬 수 없는 강이라고 인식하는 커다란 오류를 범하고 있다. 반항과 방향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강에서 불어오는 편서풍 같은 것이다.

**(바)** '해시태그(hashtag)'는 해시(#, hash) 기호를 사용하여 게시물에 꼬리표를 단다는 뜻으로, 특정 단어나 문구 앞에 해시 기호를 써서 게시물이 그 단어나 문구와 관련된 것임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리킨다. 이후 검색 기능이 더해져 해시태그를 누르면 똑같은 해시태그를 단 글들이 검색된다. 해시태그가 널리 알려진 계기로 '아이스 버킷 챌린지' 기부 운동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기부 운동은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환자들을 위한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 시작되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이 얼음물을 뒤집어쓰는 동영상을 누리 소통망에 올린 뒤 다음 도전자 세 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기부를 이어 간다. 찬 얼음물이 닿을 때처럼 근육이 수축되는 병의 고통을 잠시나마 함께 느껴 보자는 취지이다. 2014년 여름부터 정치인,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 인사는 물론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이 이 운동에 참여하면서 기부가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사)**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굴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일어 죽을 때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걸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등장인물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와 이를 계기로 등장인물에게 나타난 '변화'를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공감'이라는 측면에서 제시문 (마)와 (바)의 차이를 서술하고, 제시문 (바)에서 언급된 '도전자'가 기부행위를 할 때 고려할 점을 제시문 (라)와 (사)를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다음 상황에 기초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 평소 도자기 공예에 관심이 많은 영희는 찰흙으로 도자기 컵과 도자기 그릇을 만들어 판매하여 그 이익을 전액 기부하려고 한다. 영희는 최대 4시간까지 도자기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400g의 찰흙을 보유하고 있다.
- 찰흙으로 도자기 컵 한 개를 만들 때 소요되는 시간은 10분이고, 이때 필요한 찰흙의 양은 40g이다.
- 찰흙으로 도자기 그릇 한 개를 만들 때 소요되는 시간은 20분이고, 이때 필요한 찰흙의 양은 10g이다.
- 영희가 만든 도자기 컵 한 개가 판매될 확률은 0.5이고, 도자기 그릇 한 개가 판매될 확률은 0.2이다. 이때 도자기 컵과 그릇은 각각 독립적으로 판매된다고 가정한다.
- 도자기 컵 한 개를 판매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개당 4,000원이고, 도자기 그릇 한 개를 판매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개당 5,000원이다.

[문제 3] 영희가 이익의 기댓값을 최대로 하기 위해 만들어야 하는 도자기 컵과 그릇의 개수를 각각 구하시오. 그리고 이때 영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의 기댓값을 구하시오. [20점]